

교회가 아이티에 구호 물자를 보냄

교회는 아이티에 약 5만 4천 킬로그램의 식량, 의류 및 의료 물자를 보내 주고 있다. 식량에는 분유, 쌀, 누에콩, 완두콩, 칠면조 통조림, 식용유 및 소금이 포함되었다.

구호 물자는 유다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 및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감독들의 창고로부터 제공되었다. 카리브해에 있는 아이티와 남 조지아는 새로이 조직된 플로리다주 올랜도 성전 지역에 속해 있다.

구호 물자는 어린이에게 식량을 보내는 구호 단체를 통해 교회의 인도주의적 봉사과에 의해 분배되었다. □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 희생자들을 위한 구호

홍콩의 말일성도들은 최근에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홍수 재해의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0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식량, 식수 및 의약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 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말일성도들이 기부할 수 있는 구호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짧은 기간에 16,800달러를 모금해서 홍콩에 있는 중국 정부 구호 단체에 기증했다.

기금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홍수 피해자를 위해 홍콩 성도들이 보여 주었던 관심과 사랑에 대해 칭송했다. □

명은 목적지인 함덕으로 향했다. 그러나 목적지인 '아가의 집'까지 4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여기 저기서 한숨 소리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자랑스런 하나님의 아들, 딸, 제주 지부의 자랑스런 청년, 청년가 아니던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각오로 그 한 보를 내딛었다. 그러나 그러한 각오도 꺾는 듯한 무더위와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햇빛, 그리고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길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땀에 옷은 벌써 다 젖어 있고 거친 숨 소리를 내며 기운이 다한 몇몇 형제, 자매들은 점점 대열에서 뒤쳐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쯤, 어디선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 오더니 시야에서 보이지 않던 차가 우리들 앞에서 멈추어 섰다. 타라는 신호 같았다. 그러자 조금 전 까지만 해도 기진 맥진 하던 형제, 자매들이 '와!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면서 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고맙게도 그 분은 '아가의 집' 바로 앞에까지 우리를 태워 주셨다. 내리면서 전하는 형제, 자매들의 고맙다는 인사에 말없이 환한 웃음을 지어 주는 그 분의 모습에서 정말로 주께서 보내 주신 천사라고 느낄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린 후, 우리를 반겨 주시는 자원 봉사자들과 정신 지체 장애자들과의 간단한 인사를 마치려고 하는 때 한 남자 아이가—후에 알아보니 이름은 대운이라고 했다—내게로 다가오더니 내 팔을 잡고 같이 놀자고 했다. 처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하고 놀래기도 하였지만 그 애와 얘기도 하고 그네도 태워준다보니 마음의 부담은 어

진정한 사랑의 의미



조홍영 형제
(부산 선교부 제주 지부)

오후 2시를 알리는 종소리에 형제, 자매들의 손길이 점점 더 빨라

진다. '아가의 집' 방문을 위한 준비에 한중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자매들은 숙련된 솜씨로 분주히 김밥을 만들고 있고 형제들 또한 자매들을 돕겠노라며 팔 소매를 걷어 부친다. 형제들이 만든 김밥의 옆구리가 터질 땐 자매들이 화를 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밥은 높이 쌓여져 가고 우리들의 사랑과 우정 또한 점점 더 높이 쌓여진다.

드디어 오후 3시에 준비가 완료되었다. 한 형제가 기도를 마치자 벽찬 가슴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교사 4명, 청년 2명, 청년, 청년 11

느새 사라지고, 우리는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대운이와 잠시 놀아준 후 얼마 안되는 인원이지만 형제들은 마당 안의 풀베기 작업을, 자매들은 화장실, 복도, 계단, 방들을 청소했다. 내가 선교사님들과 풀을 베고 있는데 한 남자 아이가 다가와서 언제 가느냐고 물어 보자 '응 형은 한참 있다가 갈 거야'라고 대답했다. 비록 말과 행동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에 부족했지만 얼마 후 우리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그 애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풀베기가 끝난 후 지원 봉사자의 안내로 '아가의 집'을 둘러보면서 아직도 시설과 자본의 부족으로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안내자의 말에 너무나 안타까웠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의 봉사과 얼마안되는 김밥뿐이지만 이렇게 크나큰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사랑을 주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나마 위안을 얻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다시 오라며 큰 소리로 외치는 아이, 정말 헤어지기가 싫어 떼를 쓰다가 지원 봉사자들에게 만류 당한 아이, 애써 눈물을 감추려는 아이, 이별을 체념한 듯 자기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소리 없이 우는 아이, 이들을 보자 막상 떠나려던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져만 갔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벌써 사랑과 끈끈한 정이 줄로 이어져 있었다. "모두들 안녕! 몸 건강하고! 다시 또 올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어렵게 마쳤지만 흘러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은 아주 허탈하고 온몸이 피곤하여 두 어깨는 축 쳐져 있었지만 우

리들의 손은 꼭 잡고 그리움에 찬 얼굴로 바라보는 그 아이들의 표정을 우린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할 수 있기에 입가에는 미소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우리가 보여준 사랑은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 특히 한참 진학 준비에 바쁜 고3 자매님들과 개학 직후의 바쁜 시간임에도 함께 참석한 청남, 청녀들의 희생은 진정한 의미의 사

랑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고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으며, 참된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곳 아이들의 얼굴을 유리창에 그려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

.....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영동 스테이크

서울 영동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0월 22, 23일 양일간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한인상 장로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대회의 첫번째 모임인 신권 역원회에서 서희철 스테이크 부장은 우

리가 갖기 쉬운 가난의 유형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시온의 백성이 되자고 말씀했고, 서울 서지역 대표인 고원용 장로는 지도자의 자질과 지도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인상 장로는 개인의 소중함과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신권 역원회와 같은 시간에 여성



대회가 끝난 후 함께 한 한인상 장로 부부(앞줄), 고원용 장로(뒷줄 오른쪽), 스테이크 부장단

지도자 모임이 있었고 두 모임이 끝난 뒤 스테이크와 워드 평의회에 관한 훈련 모임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인간 중심 프로그램(P. O. Program)과 협의 평의회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많은 연사들이 신앙에 찬 간증과 말씀을 전해 주었다.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차중화 형제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친절로 생활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지역 대표인 고원용 장로는 회원들은 자주 한자리에 모이고 더불어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주연사인 한인상 장로는 신앙의 혼란기에 가장 훌륭한 주님의 방법으로 도전해 보았던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신앙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배양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경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했다.

스테이크 경계 내에 있는 배명 고등학교에서 600여명의 회원들이 큰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된 일요일 총회에서 서희철 스테이크 부장은 젊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든 성도들이 내적으로 충실한 신앙을 쌓을 것을 당부하였고, 서울서 선교부의 닐슨 선교부장은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인간이 여러 조건이 구비되고 난 후인 6일 째에 창조되었음을 설명하고 구도자가 회원이 되는 것도 순리와 단계가 있으므로 모든 회원들이 이를 위한 프로그램인 암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배영천 서울성전장은 회원들이 성전을 방문할 때 주님과 조상들이 기뻐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회원들과 회원들의 가족이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마

지막 연사로 나선 한인상 장로는 엘마서 34장 3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면서 주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 다시 못을 박는 것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굳게 하여 이웃을 격려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면서 말일성도가 주님의 서신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로써 증거해야 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8명의 형제가 장로로 성임되었다. □

수원 스테이크

후반기 수원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0월 29, 30일 양일간에 걸쳐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이소렌슨 장로를 모시고 개최되었다.

신권 역원회에서 서울 서 지역 대표인 고원용 장로는 교리와 성약 4편 2~6절을 인용하여 신권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했고, 소렌슨 장로는 교리와 성약 46편 2절의 "나의 교회의 장로들은 처음부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해야 하느니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권 지도자들이 회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훈련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맥스웰 장로의 말씀 중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시작하지 않으시며 단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여유가 있는지 질문하시어 만약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신권 지도자들이 부름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였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허충석 형제는 모로나이서 7장 43절의 '온유한 자'에 대하여 전하시며 항상 회개하여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권고하였으며, 정승자 자매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오정오 형제는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며, 이용환 스테이크 부장은 주제 성구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며 영생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해야 하며 끊임 없이 회개하고 영원히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이영희 형제는 신권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을, 개종한 지 1년도 채 안된 김형진 형제는 비활동 회원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그리고 서울서 선교부의 닐슨 선교부장은 회원 선교 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했다. 한편 이윤경 자매는 구도자 생활 6년만에 침례를 받고 그 기쁨을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지도자의 권고대로 생활하여 기쁨을 얻었던 것에 대한 간증을 전하였고, 주연사인 소렌슨 장로는 헌터 대관장님의 안부를 전하며, 야고보서 5장 19~20절을 인용하여 현대의 생활에서 음악, 춤, 술, 담배, 순결 등 우리를 미혹케 하는 것들을 나열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번 대회에서 박종각 형제(신평)가 대제사로, 이두호 형제(안성)가 장로로, 오정오 형제(매탄)가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 및 지지를 받았다.

이번 대회를 위해 스테이크 부장단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였으며, 조정 및 예배당 청소 등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참여하였다. □

광주 스테이크

1994년도 하반기 광주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1월 5, 6일 양일간에 걸쳐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교리와 성약 108편 7절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를 격려해 주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중,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박유미 자매는 나의 발전 기록부를 기록하면서 얻은 간증, 최근 개종한 손용 형제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이종택 형제는 자신의 눈으로 쉽게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것에 관하여 말씀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종배 형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발전시키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50여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분위기를 영적으로 고조시켰다.

일요일 총회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김광운 형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입니다.”로 시작된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실을 맺어 가는 과정과,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으며, 귀환 선교사인 홍정순 자매의 간증, 강남현 형제의 말씀에 이어 대전 선교부의 이강우 선

교부장은 ‘기도와 행위로써 네 형제를 격려하라’라는 주제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칭찬의 말을 할 것과 모범을 보일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안식일을 지킬 것’과 ‘복음의 지식을 탐독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끝까지 충실한 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대회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손용, 임진찬, 정호연, 최의장, 김재춘, 김상진, 김평호, 이상열 형제가 장로로, 윤영통, 이준행, 문황업 형제가 대제사로 지지 받았으며, 문황업, 조사의 형제가 고등 평의원으로, 스테이크 초등학교 협회 회장에 양혜란 자매, 1보좌에 홍정순, 2보좌에 김금란 자매, 스테이크 집행 서기에 정한 형제, 주일학교 회장에 박관준 형제, 청남 회장에 이현찬 형제, 1보좌에 임진찬, 2보좌에 박옥진 서기에 정호연 형제가 부름 받았다.

일요일 총회에서는 전통의 구모라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

전주 스테이크

후반기 전주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1월 19, 20일 양일간 이효종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를 주제로 한 이 대회의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지난 11월 14일에 귀환한 김영란 자매(서울 선교부 봉사)가 확신에 찬 간증과 어

느 비활동 회원이 활동화 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기쁨을 전해 주었으며, 이철오 형제와 황해순 자매는 비회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보이자고 권고했으며, 대전 선교부의 이강우 선교부장은 침례는 기적이며 선교사들이 어렵게 일군 이 기적을 회원들이 잘 지켜달라고 말씀했다.

일요일 총회에서의 모든 말씀은 비활동 회원을 찾고 활동화 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편들을 제시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주연사인 이효종 스테이크 부장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생활해야 하고, 회원 모두가 좀더 겸손하고, 좀더 친절하고, 좀더 인내하고, 좀더 용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양식 형제(노송), 김형진 형제(징주)가 장로로 지지 받았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오양식 형제가 해임되고 이철오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에, 김종갑 형제가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또한 박주인 형제와 오양식 형제는 고등 평의원에 장성호 형제는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

분리 재조직

청주 스테이크 유천 와드가 유성 지부와 둔산 와드로 분리 재조직됨

- 유성 지부 지부장 : 문명규 형제
- 둔산 와드 감독 : 고명한 형제

1995년도 한국 선교사 훈련원 일정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1월	1월 9일	1월 27일
2월	2월 20일	3월 10일
3월	3월 20일	4월 7일
4월	4월 17일	5월 5일
5월	5월 15일	6월 2일
6월	6월 12일	6월 30일
7월	7월 10일	7월 28일
8월	8월 7일	8월 25일
9월	9월 11일	9월 29일
10월	10월 9일	10월 27일
11월	11월 6일	11월 24일
12월	12월 4일	12월 22일

역원 변경

서울 북 스테이크

- 신촌 와드 감독 : 박형준 형제
(전임자 : 김영근 형제)
- 녹번 와드 감독 : 손병호 형제
(전임자 : 이용도 형제)

부산 서 스테이크

- 삼천포 지부 지부장 : 이호범 형제
(전임자 : 권익상 형제)

원주 지방부 지방부장 : 박수근 형제
(전임자 : 오용근 형제)

강릉 지방부 지방부장 : 이성진 형제
(전임자 : 현임배 형제)

청주 스테이크

- 선화 와드 감독 : 류인춘 형제
(전임자 : 김재택 형제)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70기

(1994년 11월 14일 ~ 12월 2일)

〈성명〉	〈출신지〉	〈선교부〉
강민정 자매	강서 S/부천 W	대전 선교부
김기영 자매	인천 S/담동 W	부산 선교부
김숙자 자매	광주 S/여수 W	서울 선교부
박준현 장로	대구 S/포항 B	서울 서 선교부
안혜정 자매	광주 S/백운 W	서울 서 선교부
최금자 자매	천안 D/천안 B	부산 선교부



맨뒤 : 박준현 장로
가운데부터 왼쪽부터 : 강민정, 김숙자
앞줄 왼쪽부터 : 안혜정, 김기영, 최금자

편집실 안내

성도의 벗 기사 모집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성도들
을 좀더 영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
는 지역 소식의 구성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이 기사를 모집합니다.

이나 간증
다. 기타 성도들을 영적으
로 고양시킬 수 있는
내용

1. 내용 : 가. 스테이크, 와드/지부
의 특별한 행사
나. 물문경, 선교 사업,
가정 복음 등 복음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2. 분량 : 행사 - A4용지 1매
간증 - A4용지 1.5~2매
3. 보낼 곳 : 우편번호 133-600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편집실